



폭염과 가뭄 이겨낸 당근 새싹 10일 제주시 구좌읍 당근밭에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당근이 새싹을 틔웠다.

강희만기자

세계 최대 ‘추자해상풍력발전’ 새 국면

현재 제주 주도 추진 속 사업자 무산 등으로 좌초 위기
정부, 국가 주도 해상풍력 입지 검토... 도에 의견 요구
지정 시 경제성·주민수용성 검증과 인허가 정부가 진행

해상 경계 분쟁과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표류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국가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후보지로 추자 해상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제주도 주도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방식이 국가 주도로 재편된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 구역으로 추자 해상을 선정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는 올해 5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제

도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은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해 28개 법령과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는 구조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국가 주도로 변경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검토도 국가가 하고, 민간 사업자 몫이었던 경제성 검증도 정부가 한다. 복잡한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통합됐다.

기후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자 예비지구로 지정할만한 전국 10곳 해상을 발굴해 후보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 후보지 중 한 곳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향을 보유한 곳 중 어업활동과

해양환경·생태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해상 교통 안전과 항만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을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발전 용량 등을 검토하는 기본 설계에 나선다. 풍력 발전사업의 핵심인 경제성 검증은 이때 이뤄진다. 정부는 예비지구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뒷받침할만 바람이 충분히 불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향후 선정될 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기본설계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승격돼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첫번째 국가 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는 올해 말 확정된다.

특이한 것은 기후부가 전남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고려한 예비지구 후보구역이 제주도와 전남 모두 자기 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해상 경계 분쟁 지역이기 때문으로, 실제

예비지구 지정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두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다툼이 해소돼야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 경계 분쟁 지역은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거 한 민간업체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추자해상풍력이 추진되는 추자도 동쪽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완도군이 이를 수용하자 해당 해역 관할권은 제주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이 해소되면 두 지자체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지구 해상이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해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설계와 이익 공유 방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2면으로 계속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21일 인사청문회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며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 장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갑),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면), 김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덕홍 의원(무소속, 조천읍)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제주시 노동동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강창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도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오소범기자

하반기 히트펌프 보급 본격... 1418가구 모집

이달말까지 온라인 신청
도, 최대 98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바꾸는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하반기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스·기름 보일러를 전기로 움직이는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해 난방비 부담과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42가구가 선정돼 설치를 진행 중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400만원 중 70%(최대 980만원)를 국비·도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30%(최대 420만원)는 제조사의 구독·렌탈·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급 설비는 20kW 미만 공기열 히트펌프, 축열조(300~500ℓ), 가상발전소(VPP) 설비 등이다.

모집 규모는 도내 1418가구로 지원 대상은 3kW 이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이다. 8월 10일부

터 31일까지 원하는 히트펌프 제조사 한 곳을 골라 온라인으로 현장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제조사가 현장 확인과 승인가구 서류 접수까지 맡는다.

현장 확인 신청 가능한 제조사는 대성히트에너지시스,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LG전자 등 네 곳이다.

신청 가구가 제조사 배정 물량보다 많으면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평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보일러 사용 가구, 단열 효율이 높은 가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구, 취약계층 가구 등을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하반기 보급으로 올해 목표인 2460가구 보급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민이 원하는 제조사에 바로 신청하고 현장 확인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소범기자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지하수를 아끼는 오늘, 제주의 미래를 지킬 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도민 모두의 약속과 실천이 더해질 때, 제주의 청정한 물은 지속됩니다.

- 빗물, 하수재처리수, 중수도 등 대체수자원 적극 활용
- 비료·축산분뇨·하수 등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강화
- 일상 속 물 절약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